

지역 매 아리

정읍시 보건소, 건강프로그램 운영

정읍시 보건소가 제2기 건강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달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1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기체조, 요가, 건강체조, 라인 체조, 노래 교실, 집콕·순환 운동 등 7개 과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6월 12일 10시 이후 삼골 보건지소 2층 교육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단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유연성 증진, 근력 강화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생활과 생활건강팀(☎539-672, 6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도시 경관의 핵심 요소로 가로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관동로 일원에 '특색있는 가로수 시범거리' 조성해 나갔다.

명품 가로수 길로 탈바꿈

정읍시, '특색있는 가로수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 사업비 1400만원 투입

도시 경관의 핵심 요소로 가로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관동로 일원에 '특색있는 가로수 시범거리' 조성해 나갔다.

사업 사업에는 1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월부터 생육이 양호한 단풍나무 노수를 선정하여 수목 전지를 실시했고 11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동로(동초등학교 사거리~초산교 교차로) 1.4km 구간 단풍나무 124本の 수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산형 모양의 정형식 가지치기로 특색있는 가로수 거

리로 탈바꿈시켰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 불편 해소와 함께 상가의 간판을 가리는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물론 통감할 수 있는 가로수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가로수는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색자원이자 도시 가로경관의 친화성과 자연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도시 경관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

이에 따라 시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가로수 관리 과정과 주민 반응 등을 종합 검토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를 통해 가로경관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주민이 명품 가로수 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지역 내 단풍나무와 빛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총 12종 2828본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위해 땅아 제거와 사비, 급수작업, 결실구간 보수작업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4개소 설치

부안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부안읍사무소와 보안면사무소, 진서면사무소,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배터리를

2시간 이내로 완전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기로써 전동보장구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타이어 공기주입과 충전타이어, 휴대용 급속충전 기능이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전동보장구에 충전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스위치를 누르면 되며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복분자 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이번주부터 고창 각 지역농협이 복분자 수매를 시작하는 가운데 수매장려금이 kg당 1000원으로 확정됐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으로 지역농협 수매에 참여한 복분자 생산농가에게 1kg당 1000원씩을 직접 지원한다.

또 지역농협에서 관내 가공업체에

공급한 물량도 kg당 1000원을 고창군에서 지역농협에 지원해 가공업체의 원료확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5일 지역농협장들과 논의를 통해 복분자 수매가 매 후 지역농협은 시중가격을 적용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

이다. 특히 최근 '복분자 생산안정화사업'이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의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한 보조금 대상 농가에 대해 사업비의 30%를 추가로 지원해 신규 복분자 식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줄 전망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복분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

장은아 부안군의원, 정례회의서 관련 조례 개정 촉구

부안군의회 장은아 의원(부안읍, 행안면 선거구)이 11일 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장은아 의원은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 일정 보수 수준의 보장 의무가 있음에도 그간 부안군이 타 시·군에 비해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장은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면 종사자의 근무 만족도 향상 뿐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도 자연스럽게 함께 높아질 것이므로, 부안군에서는 앞으로 군에 접목 가능한 타 시군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조례의 개정,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준수에 대한 시실 전수 조사 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정읍시가 1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광업·제조업 조사는 시 소재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사업체 155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4회째를 맞는 광업·제조업 조사는 전국단위 조사로 매해 실시되고 있다. 조사에서는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한다. 조사결과를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조사 내용은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소재지, 창설 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수입액, 영업비용, 연간 제품별 출하액·재고액, 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재고액, 유형자산(사업체) 총 13개 항목이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해 각종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통계작성은 조사 대상처의 정확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조사원의 사업체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147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5868명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정보통신과 통계팀(☎539-5401~54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11일 고창황토배기유통센터 애플수박선별장에서 고창애플수박 출하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혼자서 수박 한통은 기본이죠”

고창군, 애플수박 본격 출하... 관내 30여 농가 재배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꺾어 먹을 수 있고, 성인 남자가 한통으로 가뭄히 들어 올릴 수 있는 수박, '고창 애플수박'이 2019년 대한민국 여름 과일시장의 관도를 바꾸고 있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고창 애플수박 출하식이 고창황토배기유통센터 애플수박선별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고창 애플수박 출하식은 올해로 3번째다.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여름철 과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고창애플수박은 관내 30여개 농가가 48ha에서 재배하고 있다. 작목반은 올 생산량을 2000톤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수박은 혼자 먹기엔 양이 많고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나와 치우기 번거롭다.

애플수박은 기존 수박의 4분의 1

크기로 미니수박으로도 불리며 최근 늘어난 1인가구 소비 트렌드와도 맞아 떨어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높은 당도는 물론 육질이 뛰어나 맛이 쫄쫄해 꺾질이 얇아 사과처럼 꺾어 먹을 수 있어 간편한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창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GS리테일은 물론, 이마트, 옥션 등 대형유통업체도 고창군과 애플수박 납품계약에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정정 고창지역에서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생산된 '고창 애플수박'이 1인 가구시대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cartoon bear mascot, images of wine bottles,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s and their prices.